

## ① 호남 20+ α · 전국 40... 녹색돌풍 '태풍' 되나

(국민의당)

### 총선 D-1 호남 5대 관전 포인트

- ② 새누리 이정현·정운천 지역구도 깨고 '기적' 일까
- ③ 20~30대 VS 50~60대 세대간 대결 이뤄지나
- ④ 최소 15%~최대 30% '부동층' 표심은 어디로
- ⑤ 여성 후보 광주 10명·전남 1명 ... 당선자는?

4·13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과거 총선과 달리 아권의 분열로 인해 호남 제1당 지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강고했던 영호남 지역주의에 균열이 일어날 것인지, 지역 여성의원들의 국회 진출이 얼마나 이뤄질지 주목대상이다. 또한, 광주·전남 일부 선거구가 박빙의 승부처가 되고 있는 만큼 세대간 투표 대결이 이뤄질지, 부동층이 어디를 선택할지가 관건이다.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5가지로 정리했다.

#### 〈총선 관련기사 3·4·5면〉

◇국민의당 '녹색 돌풍' = 현재 선거 중반 판세 흐름으로 볼때 국민의당이 호남의 상당수 선거구에서 우세를 보이면서 호남 제1당 부상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호남의 '녹색 돌풍' 여세를 몰아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시켜 호남 20석을 포함해 예상 의석수를 35석~40석까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 측은 문재인 전 대표의 2차례 호남 방문이 이어지면서 막판 부동층에서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어 '녹색 돌풍'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호남에서의 '일당 독점 체제'는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두 당이 어느 수준으로 의석을 나눠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두 야당의 의석수 분포는 향후 야권 정계 개편의 주도권을 좌우할 전망이다.

◇영호남 지역구도 깨지나=야야 양당의 '뒷받침' 영호남에서 부는 돌풍이 실제 결과로 나타나고 공고한 지역구도의 균열이 이어질지는 이번 총선의 최대 관전사 중 하나다. 대구에서는 야당 출신 무소속 홍의락, 더민주 김부겸 후보의 '이변' 여부가 태풍의 눈이다. 반면 야당의 뒷받침 호남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전남 순천), 정운천(전북 전주) 후보가 '기적'을 일궈낼지가 관심사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역의 경우 3~4개 자치단체로 묶어진 선거구에서는 후보 고향에 따른 '표심' 향배, 즉 소지역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날지도 주목된다.

◇세대간 대결 이뤄지나=유권자는 고령화되고 있지만, 적극적 투표층은 오히려 젊어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투표장에 가는 비율이 높았던 50~60대의 투표의지가 낮아지고,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여겨졌던 20~30대의 투표참여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년·노령층을 주된 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은 지지층 결집에 비상이 걸렸지만, 더민주는 젊은층의 투표 의향 확대에 고무된 분위기다. 특히 호남에서는 중년·노령층에서 국민의당 지지도가 높은 반면 더민주는 젊은층에서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경향이 투표 당일에도 그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부동층 향배는=그동안의 지역 여론조사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각 선거구의 부동층은 최소 15%에서 최대 30%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출마자들은 선거막판까지 부동층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부동층의 향배야말로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구는 물론 각 당의 지지세 외연 확산에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여성의원 얼마나=19대 2명이었던 여성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는 몇 명 나올지도 주목된다. 국민의당 권은희(광산) 의원은 광주 첫 여성 재선 의원에 도전장을 던졌다. 더민주 박혜자(광주 서갑) 의원은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광주에서는 현역의원인 권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 양향자 후보와 정의당·민중연합당 등에서 10명의 여성 후보가 나섰다. 전남은 여성 후보가 1명뿐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투표 응시 검사 제20대 총선을 이틀 앞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영주종합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각 투표소 관리관들이 투표 응시자를 최종 검사하고 있다.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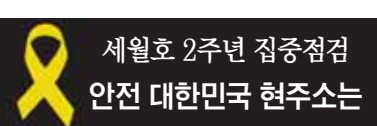
## 2野 호남 총력전... 文 2차 방문에 安 영상 메시지 보내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문재인 전 대표의 2차 호남 방문 카드에 막판 판세 흔들기에 나선 반면, 국민의당은 대세론을 내세우며 민심 굳히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호남의 지지를 조건으로 정계 은퇴를 연계시킨 문 전 대표는 지난 8~9일에 이어 이날 광주와 여수, 순천 등을 찾아 더민주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문 전 대표는 12일에는 광주 접전 지역을 찾아 광주 민심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할 계획이다.

문 전 대표의 2차 호남행은 '1차 방문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성이 어느 정도 먹혔고, 접전 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 요청도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2차 호남 방문에 국민의당은 대세론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진정성이 결여된 선거용에 불과,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호남 지역구 후보

캠프에 국민의당 지지 호소 영상 메시지와 ARS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의당은 문 전 대표의 호남 방문이 진정성이 결여된 선거용에 불과하며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김경록 대변인은 "안철수 대표는 새누리당과 싸우면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의당, 호남 민심과 싸우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참사 직후 '선박공영제' 발표 "현실성 없다" 소리없이 폐기



세월호 2주년 집중점검 안전 대한민국 현주소는

〈상〉 연안 여객선 안전 전국 여객선 절반 전남 바다에 대부분 선사들 적자에 허덕 제대로된 정비 없이 불안한 항해

세월호 참사 2주기(4월16일)를 앞둔 우리 바다는 이제 안전해졌을까. 정부는 여객선 안전에 관해서 만큼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수없이 공언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쏟아낸 여객선 안전대책 가운데 상당수는 대책 자체가 폐기되거나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한 대표적 대책은 선박공영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선박공영제를 발표했다가 소리없이 폐기했다.

선박공영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항로(전국 27개)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을 맡아 여객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였다. 침몰한 세월호 역시 선사 측이 선박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점, 마구잡이로 선박 구조를 변경해 배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이 제도 도입에 고려됐다.

전남의 경우 56개 항로(34개 선사·91척) 중 14개 항로가 적자에 허덕이는 노선이다. 정부 발표대로 추진됐더라면 지금쯤 정부가 운영하는 선박에 몸을 싣고 안전하게 섬을 오갈 수 있었겠지만 폐기된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업계·학계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예산 및 운영 조지 확보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전남지역의 한 여객선사 관계자는 "전국의 연안여객선 가운데 절반이 전남 앞바다를 운항하고 있는데, 대부분

적자 노선이라 선사 측이 선박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노후 선박들이 수시로 고장나 결항하는 등 위험한 운항을 하고 있다"며 "적자비용 일부는 보전하는 식으로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 검사 부실에 관한 정부 대책도 진척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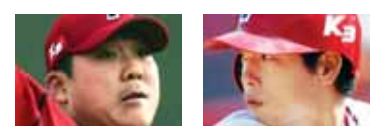
정부는 선박검사를 사실상 독점하는 한국선급(KR)에 더해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선급 등 외국검사기관 가운데 1곳에 선박 검사대행권을 개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다. 현재 한국선급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선박검사에 외국 선사가 들어서 경쟁 체제로 전환된다면, 비용과 검사 수준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선박 검사 대행권한을 개방한다고 해서 외국 선급이 국내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지에 대해선 시장규모와 굳어진 독점 체제 하에서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남은 선박을 현대화하는 사업도 정부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의 경우 국내 건조 선박에 한해서 지원되는 탓에 폐수 여객선 등 국내 건조가 힘든 선박을 들여올 선사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도 팽목항 부근에 270억원을 들여 국민해양안전체험관을 건립,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해양안전문화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내놓은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부지 매입도 이뤄지지 않는 등 더딘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직후 적자 항로의 경우 국민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선박 공영제를 적극 도입하려했으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포기했다"면서도 "이미 실패 성을 거둔 대책도 상당하고 다양한 후속 대책이 여전히 진행 중이므로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누리과정 시한폭탄 또 터진다 ▶ 7면



KIA 임준혁·오준혁 비룡 상냥 ▶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l (도시연비: 6.5km/l, 고속도로연비: 8.8km/l), 5등급, 복합CO2 배출량 240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